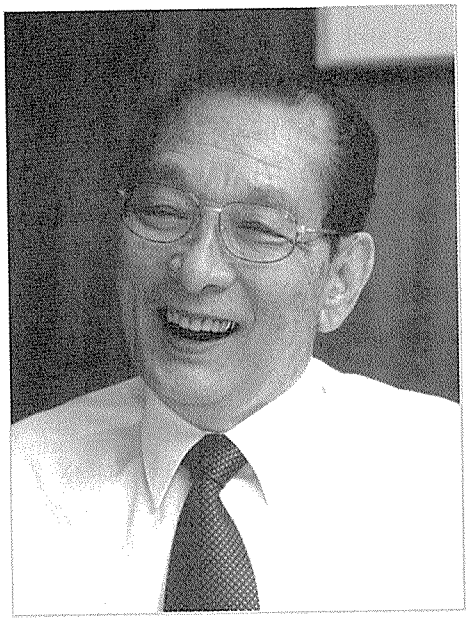
靑峰 이문호 선생님



1922년 황해도 서흥군 신막에서 출생하신 선생님은 1942년 현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대학 의학부를 졸업하면서 한국 의료계를 짊어지는 대 장정을 시작하셨다. 선생님은 1988년까지 서울의대에 봉직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진료와 연구에 몰두하시는 한편 수많은 대외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의학발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큰 성과를 이루시었다. 대한내과학회 회장,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대한혈액학회 회장, 한국지혈혈전학회 회장과 대한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핵의학, 갑상선학과 혈액학 등 내과학 분야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심은 물론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선생님은 일찍이 국제적인 학문 교류에도 힘쓰셔서 국내에서는 의학 분야의 첫 국제학술대회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혈액학회를 1979년 서울에서 개최하셨으며, 이후 국제혈액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국제혈액학회의 회장으로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혈액학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다. 선생님은 서울의대 재직시에 현대식 연구시설을 갖춘 암연구소를 새롭게 개관하시어 국내의 암연구 분야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하셨으며 현재도 한국암연구재단 이사장으로 암연구 발전에 정진하고 계신다.

선생님은 1954년부터 3년간 독일 프라이부르그 의과대학에서 핵의학을 중심으로 독일의 선진 의학을 연구하고 귀국하신 후 국내에 핵의학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도입하셨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찍 선진 핵의학을 도입하신 덕분에 한국의 핵의학은 일본 등 동양권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진료 실적을 쌓게 되었으며, 2006년 서울에서 세계핵의학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한국의 핵의학은 선생님이 독일에서 귀국하신 후 서울대학교병원에 동위원소실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동위원소실은 핵의학을 이용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후학들의 연구 현장이었다. 당시 서울의대에 근무하였던 사람들 중 내과를 제외하고도 얼마나 많은 후학들이 동위원소실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연구하고 석박사학위도 받았는지 돌이켜 보면 감히 한국의 핵의학은 한국의 기초의학의 산실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선생님 제자들은 모두가 동위원소실에서 배우고 연구하였으며 어떤 분들은 숙식까지도 동위원소실에서 해결하였다.

1988년 서울의대를 정년 퇴임하신 후에도 항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선생님의 평소 말씀 그대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보통 사람은 한가지 일 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왕성한 의욕으로 맡아 오고 계시니 제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할 뿐이다. 선생님은 아산재단의 서울중앙병원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셨으며 초대 병원장, 의료원장으로 재직하셨다. 일찍이 헌혈등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선생님은 대한적십자사의 부총재로서 우리나라의 혈액사업에도 기둥 역할을 하셨다. 선생님은 고희를 훨씬 넘긴 지금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으로 우리나라 모든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심사하고 부여하는 중책을 맡고 계신다.

선생님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셨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왕성한 추진력과 세심한 일처리를 경탄스럽게 보아왔으나, 우리들로선 감히 생각하기도 힘들고 벅찬 일들이다.

선생님은 의학 분야의 수많은 업적과 사회적 기여에 따라 표창과 상도 많이 받으셨다. '3.1 문화상', '학술원 저작상', '대한민국훈장 동백장', '모란장' 등 많은 표창과 상을 받으셨으며, 1995년에는 독일에서 '십자공로 대훈장'을 받으심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업적을 기리게 되셨다. 선생님은 또한 1998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상하시어 제자들의 귀감이 되셨다.

선생님은 후학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저서도 출간하셨다. '급성질환의 감별진단과 치료', '최신 치료와 처방', '내과학', '갑상선학', '병과 치료', '한국혈출혈열' 등은 지금도 많은 제자와 후학들이 찾고 인용하는 저서들로 선생님의 왕성한 학문적 의욕의 결정이다.

선생님을 잘 모르는 후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울 것이다. 선생님을 직접 모실 기회가 있었던 제자들만이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선생님을 곁에서 모실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음 몇가지 일화는 선생

님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1970년대로 기억되는데 독일의 저명한 제약업계 대표가 참석한 의료인들의 모임에서 독일인 손님이 선생님에 대해 한국 내과학계의 대표냐고 물었을 때 어느 분이 우리나라 의학계의 대표라고 주저 없이 소개하셨다. 선생님이 우리나라 의학계에 남긴 발자취는 오래 전부터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뚜렷하였고, 또 이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회갑을 맞아 선생님의 연구업적집 발간을 기념하여 제자들이 모였던 때라고 기억되는데, 큰 아드님이 회식 장소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 손님 한분이 아드님 보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고는, 의사를 택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 한 일 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무릇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야 집안이 발전하는 법인데 의사를 하였다면 결코 선생님만큼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긍정의 갈채가 일시에 터진 일도 있었다.

항상 정력적이고 매사에 최선을 다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우러러 본받지 않으려는 제자가 없다. 선생님은 제자들이 한가히 지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늘 새로운 테마를 주시면서 연구 활동에 힘쓰라고 격려하신다. 이렇게 엄격하고, 학문에 게으르지 않도록 채찍을 놓지 않으시지만, 선생님은 제자를 아끼고 돌보는 데에 남다른 애정과 열성을 갖고 계신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는 그렇게 엄격하고 무섭게 야단을 치셔도 제자들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항상 제자들의 장점만 골라 칭찬하신다. 수련을 마친 제자들을 다른 병원에 보내실 때도 다른 선생님 같으면 전화로만 부탁하실 일이더라도 선생님은 손수 제자의 손을 이끌거나 선생님 혼자 직접 방문해서 제자들의 앞길을 부탁하신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고, 사람이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는 잘 해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정년을 맞아 모교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실 때 필자는 옆 자리의 어느 교수가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분의 제자들에게도 불리하게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선생님의 제자로서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얼핏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냉정히 나 자신을 돌아 보면 스스로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부끄럽기만 하다.

선생님의 사랑과 지도로 어느덧 필자도 이제 제자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나, 선생님의 생각과 가르침은 가이 흉내도 낼 수가 없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은사님께 배움을 받고 지금까지도 곁에서 모실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공자는 훌륭한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였으나, 필자는 훌륭한 은사를 모실 수 있는 것은 더욱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고 싶다. (서울의대 내과 박선양) KRIA